



## 역사 동화를 활용한 초등 사회과 역사 수업방안 검토\*

최동민<sup>1</sup>, 신재준<sup>2</sup>

### 《요약》

이 논문은 학생들의 흥미와 호기심, 상상을 끌어내는 초등 역사 수업을 모색하며 사례 연구로서 역사 동화를 활용한 수업방안을 검토하였다. 각각 조선 후기와 개항기를 배경으로 하는 『책과 노니는 집』(이영서, 2009), 『서찰을 전하는 아이』(한운섭, 2011) 두 작품을 택해 현 교육과정 체제 안에서 역사 수업을 중심으로 ‘온작품읽기’ 수업을 실천한 최동민(2023)의 연구를 토대로 그것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첫째,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맞춰 두 역사 동화의 내용 분석을 보완했고, 수업 설계도 일부 수정했다. 둘째, 역사 동화로 수업할 때, 학생들이 추가 자료, 특히 당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1차 사료를 같이 본다면 수업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어떤 보조 자료를 제공하면 좋을지를 검토하고 제안했다. 이 논문에서 수행한 ‘온작품읽기’ 작품 선정과 내용 분석,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1차 사료 선정 등의 작업은 재밌는 역사 수업을 위한 하나의 참고 사례로서 역사 동화 ‘온작품읽기’ 수업법을 개선해 가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역사, 역사 동화, 초등 사회과, 역사 수업, 『책과 노니는 집』, 『서찰을 전하는 아이』

\* 이 연구는 2024년 전주교육대학교 국립대학 육성사업비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하였음.

논문 심사 과정에서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세 분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1. 전주 북일초등학교 교사, dm3206@hanmail.net (주저자)

2. 전주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조교수, jj980707@jnue.kr (교신저자)

## I. 서론 : 문제 제기

교육부는 지난 2022년 12월 초중등 및 특수교육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 고시했다. 새로운 교육과정은 올해(초1~2)부터 2027년까지 학급별 순차적으로 학교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그에 따라 현재 각각의 교과별 교과서 집필이 한창 진행 중이다.

“역사의 의미를 알고 지역과 시대에 따라 달라진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파악하여 학생들이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사적 통찰력을 기를” 것을 목표로 한 2022 개정 초등 사회 역사 교육과정<sup>1)</sup>은 앞선 2015 교육과정의 그것과 비교해 다른 교과들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달라졌다고 평가된다. 분산 배치의 원칙은 유지되었으나, 특히 내용 구성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예컨대 5~6학년군의 경우 기존 교육과정이 정치사·문화사 중심의 통사 구성이었다면 이번 교육과정은 느슨한 연대기를 바탕으로 한 생활사 중심으로 재구성되었다(황은희, 2023, 70쪽).

개정 초등 역사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방향과 특징으로는 다음의 네 가지 사항을 들 수 있다. 첫째, 학생들이 역사 학습에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하였다. 둘째, 생활사를 통한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로 역사 서사를 새롭게 구성하도록 하였다. 셋째,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역사 탐구 기능을 강화하여 역사 학습의 본질적 속성을 구현하려고 하였다. 넷째, 성취기준을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제시하여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재구성해 수업할 수 있도록 하였다(황은희, 2023, 79~80쪽).<sup>2)</sup>

이처럼 새로운 교육과정이 제시한 초등 역사 수업의 구성 방향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역사가 학생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담고 있다. 기실 역사는 암기 과목이라는 인식, 학생은 학생대로 어렵고 교사는 교사대로 가르치기 부담스러운 과목이라는 인식은 낫설지 않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와도 크게 다르지 않은 초등 역사의 딱딱하고 추상적인 구성과 서술, 학습 내용의 방대함 등이 한 요인이었을 것이다.<sup>3)</sup>

그간 학교 현장과 학계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즐겁고 신나는 역사 수업을 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했다. 그 과정에서 교육연극 또는 글쓰기를 활용하는 수업, 논쟁 중심 수업 등 여러 수업 방법이 제안되고 공유되기도 했다(임해진, 2023; 석병배, 2013; 방지원, 2019). 수업에 앞선 교육과정에 관한 제언도 다수 있었다.<sup>4)</sup> 생활사에 대한 관심과 그것을 초등 역사 교육과정에

1) 2022 개정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사회과 역사 일반(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7]).

2) 개정 교육과정이 일상생활 속의 여러 사례를 활용해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 변화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분석도 같은 결의 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문계경, 2024, 39~41쪽).

3) 역사 영역의 과도한 학습량 등 초등 사회 역사 과목의 문제점은 그간 꾸준히 지적되었다(허영훈·김봉석, 2016, 124쪽; 황은희, 2023, 78쪽).

4) 예컨대 김동국은 주제 중심의 내용 구성을, 나미란은 개념 기반 내용 선정과 조직을 주장했다(김동국, 2014;

적용하려는 그간의 노력도 큰 틀에서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한 것이다.<sup>5)</sup>

이처럼 초등 역사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선행 연구의 고민의 연장에서 이 논문에서는 역사 동화 ‘온작품읽기’를 활용한 수업 방법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 II. 역사 동화 ‘온작품읽기’ : 이론적 논의와 선행 연구

먼저 역사 동화란 작가가 자신의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과거 특정 시대의 역사적 사실을 현재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문학적 상상력을 더하여 쓴 역사 소설의 한 형태이다. 단 소설이되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동화라는 점에서 역사 동화는 주된 등장인물을 아동으로 설정하고 그들의 생각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쓴 이야기라는 특징을 갖는다(황선열, 2008; 최동민, 2023, 6~7쪽).

동화와 같은 문학 텍스트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역사 수업의 좋은 교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여러 연구가 지적한 바 있다.<sup>6)</sup> 역사 동화는 역사적 사건을 이야기로 풀어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친숙한 텍스트가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역사 동화를 활용한 역사 수업은 학생들의 역사적 상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역사 동화는 역사적 상황과 등장인물의 심리를 세밀하게 묘사하고, 비유와 상징을 활용하여 독자의 상상력을 유도한다. 상황 가운데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를 제시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사건의 맥락, 등장인물 행동의 의도와 그 의미 등에 몰입하며 역사적 상황을 상상할 수 있다. 상상은 곧 역사 탐구의 핵심이자 출발이라는 점에서 학생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역사 수업은 우리 교실에 꼭 필요한 접근이다.

둘째, 역사적 상상력은 곧 호기심과 흥미로 연결된다. 상상이 가득한 역사 수업은 무엇보다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 효과가 크다. 역사 동화는 이야기의 속성을 지닌

나미란, 2022).

5) 역사교육의 맥락에서 생활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생활’을 이해하고, 변화의 양상과 동인을 탐구하며, ‘생활’을 통해서 당대 사람들의 다양한 경험과 인식 세계를 복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강선주, 2005, 171쪽). 생활사와 관련하여 방지원(2011); 문재경(2019) 등의 연구를 참고.

6) 예컨대 Egan(1986)은 역사 동화가 내러티브 형식을 활용하므로 학생들이 교과서를 학습할 때보다 더 많은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사건의 시간적 순서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Levstik & Barton(2001)은 역사 동화의 내러티브가 가상의 역사 상황에 몰입시키고, 인물의 삶에 자신이 연결된 것처럼 느끼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인과관계와 사건의 순서, 변화 등을 배울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학 작품이다. 학생들은 교과서의 건조한 서술보다 동화가 제시하는 사건의 ‘내러티브’를 흥미와 긴장감을 지닌 채 더 쉽게 따라올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역사를 친숙하게 느낄 수 있다.<sup>7)</sup>

셋째, 역사 동화를 활용한 역사 수업은 역사 탐구에 동기를 부여한다. 동화 속 역사는 일정 정도 작가의 의도와 상상, 해석이 반영된 과거이다. 동화의 내러티브에 흥미를 느낀 학생들은 작가의 의도, 인물과 사건, 서술되지 않은 전후 맥락과 배경 등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할 수 있다. 독서는 곧 역사 탐구의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는 것이다(최동민, 2023, 9쪽).

달리 보면 수업에서 동화를 읽는 과정은 곧 동화가 그리는 역사적 인물과 사건으로부터 사실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과정은 과거 사실의 일방적 수용이 아닌, 학습자 각자가 과거의 실상을 추적하고 역사상(像)을 그려보는 비판적 탐구 활동에 해당한다. 그 점에서 ‘역사적 질문 생성하기’, ‘신뢰성 있는 역사 정보를 선택, 분석, 추론하기’ 등을 주요한 성취 목표로 삼고 있는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역사 일반의 목표와도 부합한다.<sup>8)</sup>

역사 동화의 활용에 관해서는 서미숙(2010), 안진선(2012), 김송현(2013) 등의 선행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sup>9)</sup> 서미숙과 김송현의 연구는 역사를 연계한 ‘독서 지도’ 방법에 주목했다. 안진선은 각각 삼국시대와 조선 문화·과학에 관한 두 작품을 택하고, 읽기 전과 후, 총 4단계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구성해 실제 수업에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안진선의 교수·학습 프로그램은 역사 동화를 활용한 수업을 구상할 때 매우 요긴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온작품읽기’는 하나의 작품을 나누지 않고,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텍스트 내외 요인을 분석하고 작품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등 작품을 적극적으로 읽고 해석하는 독서법을 가리킨다.<sup>10)</sup>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질문하고 생각을 나눈다는 점에서 ‘천천히 깊게 읽기’ 방법과 상통한다(최동민, 2023, 12~13쪽).<sup>11)</sup>

7) 생활사 접근에서 과거의 ‘생활세계’는 추상화되기 이전 아동 개개인의 구체적인 삶의 맥락과 상황이 살아 숨쉬는 세계로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고, 친근함과 흥미를 느낄 수 있다고 평가된다(문재경, 2024, 45~48쪽). 역사 동화를 활용한 수업은 학생들의 흥미 유발이라는 점에서 생활사의 장점을 이어받는다 할 수 있다.

8) 2022 개정 초등중학교 교육과정 사회과 역사 일반(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7]).

9) 관련해 교육연극 접근법 중 ‘살아보기’와 ‘거리두기’를 활용한 역사 동화 지도법을 검토한 서민희(2018), 그림책을 활용한 역사 수업의 효과를 살펴본 김아람(2020)의 연구도 넓은 범주에서 참고가 된다.

10) 넓은 의미에서 ‘온작품읽기’의 대상은 책뿐만 아닌, 삶과 영화·만화·동화·소설·시·연극 등을 아우른다. 또 ‘읽기’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쓰기로 연결된다(김영주 외, 2017, 21~24쪽). 부분이 아닌 하나의 작품 전체는 그것을 접하는 학생들의 삶에 울림을 주며,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삶의 이야기가 밖으로 울려 나올 수 있도록 한다(신수경 외, 2016; 심영택(2021, 128쪽)에서 재인용).

11) ‘천천히 깊게 읽기’는 한 권의 책을 천천히 깊게 읽는 독서 방법을 가리킨다. ‘천천히 읽기’는 학생들이 스스로 읽고 싶은 책을 선정하여 충분한 독서 시간을 갖고 자기 점검 독서 전략을 활용하여 읽는 방법이고, ‘깊게 읽기’는 동료 및 교사와 함께 상호작용하며 독서 전략을 습득하고 다양한 반응을 하는 ‘함께 읽기’

‘온작품읽기’는 어떤 작품의 일부를 발췌하여 그것을 부분적으로만 접하는 것과 비교해 종합적인 안목을 기를 수 있고, 수용자 나름의 소화·분석력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수용자뿐만 아닌, 교사의 수업 구성 나아가 교육과정 재구성이란 측면에서도 유익하다. 즉 ‘온작품읽기’는 특정 교육과정과 연계해 어떤 작품을 선택할 것인지부터 그 작품으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것인지까지의 전 과정에서 교사의 판단과 역량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과정을 중시하고, 교육 내용을 직접 구성하고 설계·실천하는 주체로서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우리 교육계의 점진적인 흐름에도 부합한다(경상남도 교육청, 2019, 4~5쪽).<sup>12)</sup>

‘온작품읽기’의 경우 한상희(2016), 김은애(2020) 등의 연구를 비롯해 다수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2015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한 학기 한 권 책 읽기’가 포함되면서 2020년 이후 관련 단행본도 20여 권 넘게 출간되었을 만큼 대중적으로도 적지 않은 관심을 받고 있다(조은숙·김태호, 2021, 210쪽). 한 가지 특징은 주로 국어 교육에서 관심을 보이고, 관련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sup>13)</sup>

최동민(2023)은 학위논문에서 역사 동화라는 소재와 ‘온작품읽기’라는 수업법의 결합을 시도했다. 『책과 노니는 집』(이영서, 2009), 『서찰을 전하는 아이』(한운섭, 2011) 두 역사 동화를 택해 ‘온작품읽기’ 방법을 초등 사회 역사 수업에 적용하였다는 점, 국어와 음악·미술 등 여러 교과 시간을 활용해 총 18차시로 교육과정을 구성함으로써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였다. 또 실제 수업에 적용해 학생들의 수업 과정을 관찰하고, 사전/사후 설문문을 통해 역사 동화 ‘온작품읽기’ 수업의 효과와 효용성을 분석했다는 점도 선행 연구와 차별된다.<sup>14)</sup>

단 이 수업의 효과를 점검하면서 필자들은 역사 동화와 교차해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학생들은 작가의 상상으로 묘사된 동화 속 과거를 살피면서 동시에 ‘묘사’를 제거한 당대의 실상은 어떠했는지를 상상하게 된다. 이때 교사가 또

---

방법이다(반정어, 2017, 22쪽).

- 12) ‘온작품읽기’ 교육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수업 설계가 복잡하다는 것이다(심영택, 2022, 90~93쪽). 이 점에서 교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 재구성과 문해력은 ‘온작품읽기’ 교육의 특징이자 전제 조건이다.
- 13) 역사 수업에 ‘온작품읽기’를 활용한 사례로 김영훈(2021)의 연구가 있다. 김영훈은 조선 세종 때 한글 창제에 관한 동화 『조정리 편지』(배유안, 2006)를 택해 ‘온작품읽기’ 수업을 진행하였다. 덧붙여 ‘온작품읽기’ 수업의 피드백 유형을 살펴본 연구도 넓은 범주에서 참고된다(심영택 외, 2022).
- 14) 최동민은 ‘온작품읽기’ 수업 설계를 토대로 2022년 2학기 중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S초등학교 5학년 학생 13명을 대상으로 실제 수업을 실행하였다. 교사의 수업 관찰일지, 학생들이 작성한 사전/사후 설문지 및 수업 종료 후 소감문을 토대로 이 수업 기획이 학생들의 역사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역사 탐구 동기를 부여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다른 읽기 자료, 특히 1차 사료를 제시하고 그것을 같이 읽는다면 동화를 통해 당대 현실을 더 다채롭게 상상하고 그 내용을 역사적 맥락에서 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최동민(2023)의 수업 사례 연구를 토대로 그것을 일부 수정 및 보완하여 학계에 제출하고자 한다. 첫째, 학위논문에서 수행한 두 역사 동화의 내용 분석 및 교수·학습과정안을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일부 수정·보완하였다. 특히 교과 성취기준과의 연결 지점을 명확히 짚었다. 둘째, 수업 과정 및 사전/사후 설문 피드백으로서 수업 시간에 역사 동화와 함께 읽을 수 있는 보조 자료를 제안했다.<sup>15)</sup> 이는 현장에서 큰 어려움 없이 적용할 수 있는 수업법으로서 역사 동화 ‘온작품읽기’ 수업법을 구상하고 개선해 가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Ⅲ. 검토 사례(1) : 『책과 노니는 집』(이영서, 2009)

#### 1. 『책과 노니는 집』의 내용 분석 및 ‘온작품읽기’ 수업 설계

『책과 노니는 집』은 조선 후기 영·정조대 서학(천주교)을 탄압하던 시대적 배경 가운데 필사쟁이의 아들 ‘장’과 그를 둘러싼 다양한 인물과 사건을 긴장감 있게 그렸다. 한글 소설의 유행과 서학의 전파라는 크게 두 가지 경향을 중심으로 당대 사회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실감 나게 묘사했다. 또 주요 인물인 ‘장’의 어린 시절을 주된 서술 시점으로 해 아이의 시각을 시종 견지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시대 문제를 전면에서 드러내기보다 ‘장’이라는 아이가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시대를 그려내고 있기에 5~6학년 학생들이 감정 이입을 하며 읽기에 수월하다.<sup>16)</sup>

18세기를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은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조선 후기에 해당하는 ‘달라지는 시대, 변화하는 생활 모습’ 단원을 수업할 때 활용할 수 있다. 해당 단원의 성취기준은 아래와 같다(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7], 32쪽).

[6사05-01] 조선 시대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에 유교 문화가 미친 영향을 파악한다.

15) 보조 자료는 곧 일종의 수업 참고 교재를 의미한다. 관련해 교과서와 온작품을 연결하는 방법으로서 교재를 활용한 온작품 읽기 수업을 실행한 선행 연구의 문제의식과 구체적 방안이 참고된다(고미령·심영택, 2020).

16) 『책과 노니는 집』의 상세한 줄거리 및 초등 역사 수업에 활용할 역사 동화로서의 선정 근거는 최동민(2023, 32~34쪽) 참고.

[6사05-02] 조선 후기 사회·문화적 변화와 개항기 근대 문물 수용 과정에서 달라진 사람들의 생활을 이해한다.

『책과 노니는 집』은 유교(성리학)의 보급에 따른 조선의 생활 모습을 바탕에 두면서도 한글 서적의 유행과 서학(천주학)의 도입이라는 조선 후기 새로운 변화 양상을 잘 보여준다. 그 점에서 위의 두 성취기준 모두와 관계된다. ‘온작품읽기’ 역사 수업을 할 때, 교사는 작품의 각 부분이 어떤 성취기준과 연결되는지, 교과과정과 관련해 어떤 지점을 짚을 것인지를 미리 구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첫째, 현재와 다른 조선 시대 사람들의 생활과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부분[6사05-01](①), 둘째, 한글 소설을 중심으로 한 소설의 유행 현상 및 관련 풍속[6사05-02](②), 셋째, 서학(천주교)의 전파 양상[6사05-02](③), 이상 크게 세 주제를 중심으로 『책과 노니는 집』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표 1〉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한 『책과 노니는 집』 내용 분석

쪽	내용	분석
22	사대부가의 부인들을 중심으로 소설이 불티나게 팔리자 최 서래는 아들이 하던 약방 안쪽에 다시 책방을 꾸렸다. 책방이 잘 되자 아들은 처자와 함께 따로 약초 가게를 얻어 나가고 그 자리에 최 서래는 번듯한 책방을 냈다.	소설의 유행 ②
28	딸만 거꾸 넷을 낳자 낙심이의 아버지는 몸을 푼 지 사흘도 안 된 낙심이 어머니에게 주먹질을 했다. 그리고 딸만 낳아 섭섭하다는 뜻으로 갓난아이에게 ‘낙심’이란 이름을 지어 주었다. 다섯 살 때, 낙심이는 도리원에 팔려 왔다. 다섯째로 아들을 얻은 아버지가 귀한 아들의 백일 상을 차려야 한다며 낙심이를 팔아넘긴 것이다.	남아선호사상 ①
33	글방에서 천자문을 배우는 일고여덟 살배기 아이들부터, 머리에 서리가 내린 반백의 노정승까지 약계책방을 찾는 사람들은 노소의 구분이 없었다. 양반집 부녀자와 왕실 궁녀들 사이에 언문 소설이 인기를 끌면서부터는 결혼을 앞둔 처자들이 밤을 틈타 계집종을 앞세우고 책방을 찾기도 했다.	한글 소설의 발달 ②
63	장이는 닥 껍질을 두들겼다. 얼마 되지 않아 오른쪽 어깨가 들어 올릴 수도 없을 만큼 아파 왔다. 닥 껍질은 온 힘을 다해 두들겨도 질퍽한 곤죽처럼 되지 않았다. 하지만 단돈 한 푼이라도 벌려면 방망이를 놓을 수 없었다. 억지를 부려서 얻은 일을 잃을까 봐 장이는 쉬지 않고 닥 껍질을 두드렸다. 땀에 젖은 옷이 몸에 척척 감기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그렇게 서너 시간이 지나니 닥 껍질이 썩어 놓은 죽처럼 몽글몽글해졌다.	지물포 노동자의 삶 ①
76	관아에 끌려가 죽도록 맞고 한 달이 넘게 장독에 시달리면서도 아버지는 의원을 부르려는 장이를 한사코 말렸다. “장아, 아비는 책방을 꾸미려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약값으로 헐고 싶지 않다. 책방을 차려 오래된 종이 냄새를 맡고, 새로 들어온 책의 자리를 찾아	필사쟁이의 삶 ①②

쪽	내용	분석
	<p>주고 싶구나. 단골손님이 오면 이야기책도 소개해 주고…… 그렇게 사는 게 아버지 꿈이다.”</p> <p>남들처럼 농사를 짓거나 망치질을 하는 거친 노동을 한 적은 없지만, 아버지의 손가락에는 딱딱한 굳은살이 여러 군데 박혀 있었다. 하루 종일 붓을 쥐고 책을 베끼니 밤이 되면 손가락이 펴지지 않았다. 종일 앉아 있으니 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한 번에 일어서지 못하고 ‘아이고’ 신음 소리를 냈다.</p>	
79	<p>『천주실의』는 서양 신부 마테오 리치가 쓴 천주, 즉 하느님에 관한 책이었다. 서학이라고도 부르는 천주학은 조선에선 금지된 것이었다. 다만 정약용의 외사촌 윤지충이 천주교 의식에 따라 어머니의 초상을 치른 것을 계기로 조선에서 천주교 박해가 시작되었다. 그 뒤로 천주교 관련 서적은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사악한 글이라 하여 읽어서도 팔아서도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되는 책이었다. 대낮에 포졸들이 양반집 서고에 들이닥쳐 집뒤짐을 하는 경우가 잦았다. 그러다 천주학 책이 발견되면 집주인은 영락없이 관아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심한 경우에는 목숨도 잃었다.</p>	천주교 박해의 원인③
88	<p>최 서래 입장이나 장이 입장에서도 흥 교리는 책상에 마주 앉아 한가로이 이야기를 나눌 상대가 아니었다. 고작 저갯거리 책방에서 심부름이나 하는 장이를 사랑에 출입하게 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대부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p>	신분 사회의 모습 ①
90	<p>“양반이건 상놈이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천히 여기는 백정, 망나니건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귀하고 평등하다는구나.”</p> <p>아버지는 천주학 얘기를 들려주었다. 천주학을 믿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했다.</p> <p>“천주학 책을 옮겨 적으며 아버지는 손이 떨리고 마음에 비바람이 일었다. 우리 같은 것들은 날 때부터 천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군요. 조선에서는 천지개벽할 소리지만 서양에서는 모두 그렇게 믿는다더라. 천주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p> <p>장은 광통고 밭의 땅꾼들, 상여꾼들, 망나니들이 자신과 똑같이 귀하고 평등하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장이보다 더 천한 사람이었다. 장이처럼 글을 아는 자도 없었고, 집도 없고 더럽고 가난했다.</p>	천주학의 평등 이념 ③
142	<p>요즘에는 한문 필사보다는 언문 필사 일이 많았다. 언문 소설은 날이 갈수록 인기가 좋았다. 모처럼 친정 나들이에 나선 양반집 부인들은 언문으로 된 이야기책을 잔뜩 빌려다 읽으며 시집살이의 시름을 달래기도 했다. 세책집에서는 굳이 비싼 책을 사지 않아도 빌려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언문 소설에 빠져들어 밤을 새우고 끼니를 걸렀다.</p>	한글 소설의 유행 ②
144	<p>‘김호주’는 한양 저자에서 웬만큼 이름이 난 전기수였다. 같은 이야기라도 그가 읽어 주면 사람들은 침을 꼴깍꼴깍 삼켜가며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전기수 어른이 워낙 맛나게 글을 읽어 주시니 저희 책방이 걱정이입니다. 누가 소설을 사 가겠습니까?”</p> <p>전기수가 기분 좋은 듯 몇 올 없는 수염을 쓰다듬었다.</p>	전기수의 삶 ②
152	<p>“저는 이제껏 여인으로 태어난 것을 원망했습니다. 천하게 태어난 것도</p>	기생의 삶



쪽	내용	분석
	<p>서러웠지요. 사내처럼 세상을 누리며 큰 꿈을 품지 못할 바에야 양반집에 태어나 귀히 여김 받으며 살아야 하는데 제게 그것이 가당하기나 한지요. 하지만 이제 원망과 서러움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 대감 덕 마님은 저를 걱정하십니다.”</p> <p>“아씨께서 너무 열성이시니 혹시 의심을 살까 걱정하시는 게지요.”</p>	①
155	<p>“양반들이 한자 타령하는 거야 다 그럴 만하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평생 일 안 하고, 해주는 밥 먹으며 글만 파니 어려운 한자를 익힐 수 있지. 나이 스물, 서른이 넘도록 과거 준비한답시고 글방에 앉아 세월을 죽일 수 있는 팔자도 양반뿐이고.”</p> <p>틀린 말이 아니었다. 양반집에 태어나지 않은 이상 예닐곱 살만 넘어도 물동이를 지고, 나무를 하고 제 몫의 노동을 해야 했다. 그래도 굶는 날이 허다했고 가난을 면할 수 없었다.</p> <p>“백성들이야 굶어 죽든 말든 끼리끼리 모여 앉아 벼슬 나눠 먹고, 돈 좀 모은 장사치들까지 그 앞에 줄을 서서 거드름 피우고 있으니…….”</p>	<p>신분에 따른 삶의 차이</p> <p>①</p>
178	<p>“기생들이 천주학을 믿은 모양이야. 죽은 부모 초상은커녕 제사마저 안 모시는 서양 귀신을 믿은 게지. 쫓쫓.”</p> <p>사람들이 수군거렸다.</p> <p>“몇 해 전에도 한바탕 푸닥거리를 하더구먼. 서양 귀신을 믿으면 대역 죄인의 울로 다스린다는데 꽃 같은 기생들이 형틀에서 죽어 나가겠군.”</p>	<p>천주학 탄압</p> <p>③</p>

이 같은 내용 분석을 토대로 『책과 노니는 집』 ‘온작품읽기’ 사회(역사) 수업은 총 3차시로 구성할 수 있다. 이는 국어 시간에 작품을 읽는 수업 설계와 독서 진행 상황 및 위에 서술했듯 성취기준과 연결해 이 작품에서 끌어낼 수 있는 주요 주제를 모두 고려한 것이다.

〈표 2〉 『책과 노니는 집』 사회 수업 설계17)

차시	주요 학습 내용	장(쪽)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학(천주학)의 전래에 대해 알아보기</li> <li>· 역할극(장이와 아버지의 마지막 장면)</li> </ul>	1~4장 (7~55쪽)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 후기 신분 질서의 변화 이해하기</li> <li>· 장이, 허궁제비, 홍교리, 최서래 입장에서 핫시팅 기법으로 인터뷰하기</li> </ul>	5~8장 (56~105쪽)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민 문학(한글 소설)의 발달 이해하기</li> <li>· 정지 장면(봄밤, ‘도리월’의 이야기 연회)</li> </ul>	9~15장 (106~186쪽)

17) 2023년에 수행한 최동민의 연구에서는 사회 수업 4차시를 포함, 국어(7차시)·미술(3차시)·창의적 체험활동(4차시) 등 총 18차시로 ‘온작품읽기’ 수업을 설계했다. 학생들의 반응 및 다른 교과 수업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사회 수업을 3차시로 압축·재구성하였다. 다른 교과를 포함한 『책과 노니는 집』 전체 수업 설계안은 최동민(2023, 49쪽)을 참고.

〈표 3〉 『책과 노니는 집』 수업 설계에 따른 교수·학습과정안 예시(1차시)

학습 주제	서학(천주학)의 전래	차시	1
학습 목표	서학(천주학)의 전래 배경과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 동기 유발 - 서학, 천주학, 천주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 학습 문제 안내 - 서학(천주학)의 전래 배경과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 알아봅시다.	5	
전개	○ 서학(천주학)의 전래에 대해 파악하기 - 작품 속 편지의 ‘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 서학(천주학)의 전래 배경에 대해 알아봅시다. - 당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고, 천주학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생각해 봅시다(사료 제시).	5	
	○ 역할극 준비 - 어떤 장면을 역할극으로 표현할지 선정해 봅시다. - 역할극 장면을 극본으로 바꿔봅시다.	15	
	○ 역할극(장미와 아버지의 마지막 장면) - 작품 속 장미와 아버지의 마지막 장면을 역할극으로 연출해 봅시다.	10	
정리	○ 소감문 작성하기 - 오늘 수업의 소감문을 작성해 봅시다.	5	◆소감문

## 2. 보조 자료

역사 동화 ‘온작품읽기’ 수업의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서는 동화와 교차해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자료가 필요하다. 동화와 1차 사료를 교차하여 읽으면, 학생들이 동화를 바탕으로 과거를 상상하면서도 1차 사료를 통해 그 상상을 역사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여기서는 『책과 노니는 집』의 주요한 시대적 배경에 해당하는 서학(천주학)과 (한글) 소설을 중심으로 보조 자료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sup>18)</sup>

18) 심사 과정에서 사료를 보조 자료로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지적을 받았다. 역사 동화 수업은 기본적으로 역사 수업의 일부이며,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들이 역사를 한층 생동감 있게 상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따라서 국어 시간 등을 활용해 역사 동화를 읽었다면, 사회 시간에는 교사 주도로 그 내용을 역사화하는 수업이 이뤄져야 한다. 이때 교사는 동화 내용을 토대로 주로 역사적 사실들을 언급하게 될 것인데, 사료는 교사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제시한 사료는 자료의 특성상 초등학교

가. 1차시 : 서학(서학의 전파 현상) [이하 강조는 모두 필자]

정언 이경명(李景溟)이 상소하기를,

"오늘날 세속에는 이른바 서학(西學)이란 것이 진실로 하나의 큰 변괴입니다. 근년에 성상의 전교에 분명히 계시(揭示)하였고 처분이 엄정하셨으나, 시일이 조금 오래되자 그 단서가 점점 성하여 서울에서부터 먼 시골에 이르기까지 돌러가며 서로 속이고 유혹하여 어리석은 농부와 무지한 촌부(村夫)까지도 그 책을 언문으로 배껴 신명(神明)처럼 받들면서 죽는다 해도 후회하지 않으니, 이렇게 계속된다면 요망한 학설로 인한 종당의 화가 어느 지경에 이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조정에서 여러 도의 방백(方伯)과 수령들에게 엄히 신칙하여 다시 성해지는 폐단이 없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묘당으로 하여금 상소의 내용을 자세히 상고하고 잘 헤아려 품처하도록 하라." 하였다. (『조선왕조실록』 1788년 8월 2일)<sup>19)</sup>

대신과 비국의 유사 당상을 불러 보았다. 상이 이르기를,

"이경명의 소에서 서학의 폐단을 극력 말하였는데, 폐단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

하니, 좌의정 이성원(李性源)이 아뢰기를,

"신은 그 학설에 대해서는 잘 모릅시다마는, 종전에 처분한 뒤에도 여전히 그칠 줄을 모른다면 다시 엄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우의정 채제공이 아뢰기를,

"이른바 서학(西學)의 학설이 성행하고 있으므로 신이 『천주실의(天主實義)』라는 책을 구해 보았더니, 바로 이마두(利瑪竇)[마테오 리치]가 애초에 문답한 것으로, 인륜을 손상하고 파괴하는 설이 아님이 없어 양(楊)·묵(墨)이 도리를 어지럽히는 것보다 자못 심하였습니 다. 그런데 거기에 천당 지옥에 관한 설이 있기 때문에 지각없는 촌 백성들이 쉽게 현혹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금지하는 방도 또한 어렵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나의 생각에는 우리 도[吾道]와 정학(正學)을 크게 천명한다면 이런 사설(邪說)은 일어 났다가도 저절로 없어질 것으로 본다. 그러니 그것을 믿는 자들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전환시키고 그 책을 불살라 버린다면 금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략) (『조선왕조실록』 1788년 8월 3일)<sup>20)</sup>

---

이 혼자서 읽기에는 다소 어렵게 느낄 수 있다. 그렇지만 교사가 어려운 용어와 문체를 건어내고 각 자료의 맥락과 의미를 충분히 풀어서 전달한다면 내용 자체는 동화와 연계해 학생들의 흥미를 돋울 만한 것들이다. 따라서 보조 자료의 고안은 시도해 볼 만한,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한다.

19) 정조실록 26권, 정조 12년 8월 2일 신묘 3번째 기사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두 자료는 각각 이경명이란 신하가 서학의 전파 현상을 정조에게 보고하자, 하루 뒤 정조가 대신들에게 서학의 폐단을 묻는 모습을 보여준다. 천주실의는 『책과 노니는 집』에도 등장하므로 학생들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다. 위의 자료에서 18세기 후반 지역과 계층을 넘는 서학의 유행 및 그와 관련해 한글책 보급의 실상을 한층 실감 나게 이해할 수 있다. 아래 자료에서는 조정이 서학의 교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생생하게 엿볼 수 있다. 특히 조선 조정(정조)이 처음에는 성리학 진흥을 통해 문제를 절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서학 열풍이 점점 더 거세짐에 따라 『책과 노니는 집』의 서사와 같이 그것을 탄압하는 쪽으로 기울어졌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 나. 2차시 : 한글 소설 (소설의 유행)

임금이 승정전 월대(月臺)에 나아가 동지 삼사신(冬至三使臣)을 소견하고 손수 어제(御題)를 써서 하사하였다. 또 초모(貂帽)·호초(胡椒) 등의 물건을 하사하고 선운(宣醞)하여 보내면서 심양(瀋陽)의 조선관(朝鮮館)을 그려 오고, 『탁록연의(涿鹿衍義)』와 『남계연담(南溪衍譚)』을 사서 오라고 명하였다. (『조선왕조실록』 1772년 11월 1일)<sup>21)</sup>

김상로가 아뢰기를, 지금 경고 소리가 이미 3경이 되었다고 하였다.

어젯밤에 밤을 새워 편안히 잠을 잘 수 없었으니, 오늘 밤에는 신이 아뢰 언문 소설책(諺文小說冊)을 가지고 잠에 들 거리로 삼을 것을 청합니다.

상이 이르기를, 언문은 잠자리에 드는 방도가 아니고, 한문책이 바로 잠자리에 드는 방도이다.

김상로가 아뢰기를, 무슨 말씀이십니까?

상이 이르기를, 향간의 이야기에 옛날 한 부인이 아이가 울자 한문책으로 얼굴을 덮었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묻길, 한문책으로 어린아이의 울음을 멈추려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부인이 말하기를, 아이 아버지가 평소에 한문책을 가지고 있으면 눕고, 누우면 잠이 드니 아이도 그렇게 잠들게 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즉 한문책은 곧 잠자리에 들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곤 크게 웃었다.

상이 이르기를, 나는 잠자리에 들려고 하니 경들도 그만두라.

신하들이 물러 나갔다. (『승정원일기』 1758년 12월 19일)<sup>22)</sup>

20) 정조실록 26권, 정조 12년 8월 3일 임진 1번째 기사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21) 영조실록 119권, 영조 48년 11월 1일 임진 1번째 기사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22) 승정원일기 1163책 (탈초본 64책) 영조 34년 12월 19일 신미 20/21 기사. 원문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번역문은 한국고전번역원(<http://itkc.or.kr>)의 자동 번역문을 필자가 일부 교정하였음.

위의 자료는 영조가 청나라로 떠나는 사신들에게 『탁록연의』와 『남계연담』이라는 중국 소설을 구해 오라고 명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아래 자료는 잠에 들지 못하는 영조에게 김상로란 신하가 한글 소설을 읽으며 잠을 청할 것을 권하자, 잠에 들려면 한문 소설을 읽어야 한다고 농담하는 장면이다. 지배층과 왕실에서도 소설, 특히 한글 소설이 널리 읽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어머니께서 기왕에 한글로 『서주연의』 십수 편을 베껴 놓은 것이 있었다. 이것은 본래부터 한 권이 빠져서, 권질을 채우지 못해, 어머니께서 늘 서운하게 여기셨다. 오랜 뒤, 한 好古家에게 전질을 얻어, 부족한 부분을 채우니, 책이 완전하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항 여자 한 명이 어머니께 그 책을 빌려보기를 간청하였다. 어머니는 곧 전질을 빌려주었다. 얼마 후 그 여자가 다시 와 말하기를,

“빌린 책을 삼가 돌려 드립니다. 그런데 길에서 책 한 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를 용서하시고 잃어버린 것이 어느 책인가 물었더니, 바로 나중에 베껴서 채운 그 책이었다. 완질이던 책이 다시 불완전하게 되어 어머니께서는 늘 마음에 애석해 하시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겨울 나는 아내와 함께 남산 아래 우거하고 있었다. 아내가 마침 몸도 성치 않고 무료해서 한 집안 여자에게 가진 책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 여자가 아내에게 책 한 권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그 책은 어머니가 베껴 채운 바로 그 책이었다. 아내가 내게 보여주었는데 내가 보아도 영락없었다. 아내가 그 여자에게 그 책의 유래를 물었다. 그 여자가 말하기를,

“저는 이 책을 우리 일가 아무에게서 빌렸는데, 일가 아무는 동네 사람 아무에게서 산 것이랍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은 이것을 길에서 주웠답니다.”

이에 아내는 책 잃은 내력을 이야기해 주고 돌려달라고 청했다. 그 여자도 신기해하며 돌려주었다. 이렇게 불완전한 책이 다시 완전하게 되었으니 기이하지 않은가. (조태억, 『諺書西周演義跋』, 『검재집』 권42)<sup>23)</sup>

위 첫 번째 자료는 17세기 말 서울에 거주했던 조태억의 어머니가 한글로 필사한 『서주연의』란 중국 소설과 그 대여에 관한 것이다. 잃어버렸던 책을 다시 찾는 과정이 매우 흥미롭다. 또 『책과 노니는 집』의 ‘장’의 직업이 필사쟁이란 점에서도 유사성이 있다. 한글로 필사한 소설을 이웃 사람들과 돌려 읽었다는 데서 조정뿐만 아니라 일반 민가에서도 소설이 유행했음을

23) 『한국문집총간』 190, 민족문화추진회; 정병설(2005)에서 재인용.

집작할 수 있다.

#### 다. 2차시 : 한글 소설 (세책의 등장)

“근세에 여자들이 서로 다투어 능사로 삼는 것이 오직 패설(稗說)<sup>24)</sup>을 숭상하는 일이다. 패설은 날로 달로 증가하여 그 종수가 이미 백종 천종이나 될 정도로 엄청나게 되었다. 세책집[儉家]에서는 이를 깨끗이 필사하여, 빌려보는 자가 있으면 그 값을 받아서 이익으로 삼는다. 부녀자들은 식견이 없어 혹 비녀나 팔찌를 팔고, 혹 동전을 빗내어 서로 다투어 빌려다가 긴 날을 소일하고자 하니, 음식이나 술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자신의 베 짜는 임무에 대해서도 모르게 되었다.” (채제공, 『여사서서(女四書序)』, 『번암집(樊巖集)』) <sup>25)</sup>

“서울에만 있었던 세책이란 것이 있으니, 무릇 대중의 흥미를 끌 만한 소설 종류를 등사하여 삼사십 장씩 한 권을 만들어 많은 것은 수백 권이 한 질, 적은 것은 이삼 권이 한 질이 되어, 한두 푼의 대여료를 받고 빌려 주어서 보고는 돌려보내고 돌아온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조직으로, 한창 전성기에는 그 종류가 수백 종 수천 권을 초과하였습니다. 수십 년 전까지도 서울 향목동이란 데-지금의 황금동 1번가 사잇골-에 세책집 하나가 남아 있었는데 우리가 조만간 없어질 것을 생각하고 그 목록만이라도 적어 두려 하여 세책 목록을 베껴 써둔 일이 있는데 이때에도 실제로 세 주던 것이 총 120종, 3,221책(이중에 같은 종은 30종 491책)을 계산했습니다. 이중에서 『윤하정삼문취록』은 186권, 『임화정연』은 139권, 『명주보월빙』은 117권, 『명문정의록』은 116권인 것으로 꽤 장편의 것도 적지 아니 합니다. (중략) 이런 소설들 대개가 가정을 중심으로 인생 여정의 파란을 그리고 또 거기 임하는 태도를 가르쳐 준다고 할 만한 것으로 사막 같은 가정에 이것이 샘 자리가 되고 골방 속에 갇혀 지내던 부인네에게 달 밝고 별 깜박거리는 시원한 하늘을 보여 주는 것이 실로 이 소설의 세계였습니다.” (최남선, 『조선의 가정문학』, 1938)<sup>26)</sup>

위 첫 번째 자료는 한글 소설의 유행에 관해 18세기 말 정조대 재상 채제공이 남긴 글이다. 17세기 말 조태역의 글에서 책 빌려보기의 어려움을 엿볼 수 있다면, 그로부터 100여 년 후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이 자료에서는 책 대여가 훨씬 활발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책과 노니는 집』에 등장하는 책 대여점, 즉 세책집이 실제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27)</sup> 세책집

24) 민간에 떠도는 전설적·교훈적·세속적인 기이한 이야기들.

25) 『번암집(樊巖集) 9』 (한국고전번역원 편, 2021).

26) 원출처는 매일신보 1938.7.22~8.2(이 중에 7.30) 『육당 최남선 전집 4』 (역락 편, 2003), 97~106쪽.

은 서울을 중심으로 20세기 초까지도 이어졌는데, 그 실상이 어떠했는지는 아래 두 번째 자료를 통해 보충할 수 있다. 특히 이 자료에서 소설을 ‘사막의 샘’으로, 소설 읽기를 ‘달 밝고 별 깜빡거리는 시원한 하늘’을 보는 것에 비유한 것이 흥미롭다. TV·영화나 인터넷 등이 없던 당대에 대중적인 취미 활동으로서 소설이 어떤 의미와 영향을 가졌을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자유 시간이 있다면 무엇을 합니까?’와 같이 수업 발문에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라. 2차시 : 한글 소설 (전기수)

“전기수는 한글소설인 <숙향전>, <소대성전>, <심청전>, <설인귀전> 등을 읽어준다. 매월 1일과 2일은 청계천 다리인 제일교와 제이교, 3일은 배오개, 4일은 교동(경운동), 5일은 대사동(인사동), 6일은 종각 앞에서 책을 읽어주었다. 7일부터는 역순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한달 단위로 청계천 주변을 돌며 책을 읽어준다.” (조수삼, 「추재기이」)<sup>28)</sup>

『책과 노니는 집』 12장 ‘봄밤의 이야기 연회’에서는 소설의 유행과 함께 등장한 책 읽어주는 사람, 즉 전기수가 등장한다. 이 자료를 통해 우선 잘 알려지지 않은 전기수란 직업이 실제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각 동네를 순회했던 전기수의 낭독회 양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다.

### Ⅲ. 검토 사례(2) : 『서찰을 전하는 아이』(한운섭, 2011)

#### 1. 『서찰을 전하는 아이』의 내용 분석 및 ‘온작품읽기’ 수업 설계

『서찰을 전하는 아이』는 잇따른 민란과 동학농민운동, 그리고 청일전쟁으로 나라가 위태롭던 1894년, 갑자기 세상을 떠난 보부상 아버지를 대신해 중요하고 비밀스러운 서찰을 전하기 위하여 혼자 길을 떠난 13세 아이의 이야기이다. 1894년 보부상의 열세 살 적 기억을 회상하는

27) 세책(貰冊)은 ‘책(冊)을 세(貰) 놓다’라는 의미로, 다량의 책을 보유한 업자에게 돈을 주고 책을 빌려 읽는 독서 활동이자 상업적 서적 유통의 한 형태를 가리킨다. 18세기 초, 또는 늦어도 18세기 중반에 나타났고, 18세기 후반 이후 유행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세책’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80114>).

28) 조수삼 저, 안대회 역 『추재기이 : 타고난 이야기꾼, 추재 조수삼이 들려주는 조선 후기 마이너리티들의 인생 이야기』 (한겨레출판, 2010), 119~122쪽.

형태의 이 작품은 탄탄한 구성과 간결하고 세련된 문체, 다양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장면 묘사로 독자의 시선을 강렬히 잡아끈다. 이 작품 역시 동학농민운동에 직접 참여한 인물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전봉준을 찾아가면서도 운동과는 한 발짝 떨어져 있던 보부상의 어린 아들을 주인공으로 설정했다. 그 덕분에 독자는 1894년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세란 큰 줄기를 따라가면서도 아이의 시선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였을지를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다.<sup>29)</sup>

19세기 개항기를 배경으로 하는 『서찰을 전하는 아이』도 앞서 검토한 『책과 노니는 집』과 같은 성취기준과 관련된다. 특히 [6사05-02]의 “개항기 근대 문물 수용 과정”의 큰 흐름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다. 『서찰을 전하는 아이』의 경우 첫째, 현재와 다른 조선 시대 사람들의 생활과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부분[6사05-01](①), 둘째, 조선 후기 시장과 보부상의 존재 양태[6사05-02](②), 셋째, 동학농민운동의 발발과 전개 양상[6사05-02](③), 넷째, 청일전쟁[6사05-02](④), 크게 네 주제로 나눠 수업에서 살펴볼 수 있다.

〈표 4〉 교육과정과 연계한 『서찰을 전하는 아이』 내용 분석

쪽	내용	분석
19	아버지가 춘천 사람이라 보부상들은 아버지를 이춘천으로 불렀다. 그건 다른 보부상들도 마찬가지였다. 모두들 본래 성씨에 자신이 태어난 고을 이름을 붙였다. 그게 보부상들의 관례였다. 아버지는 한지와 벼루, 먹, 안경, 장신구와 같이 작은 물건들을 팔러 장터를 옮겨 다니는 보상이었다. 그래서 큰 물건을 팔러 다니는 부상들처럼 지계를 지지는 않았다.	보부상의 삶 ②
20	경복궁 근처를 지날 때 일본 군사들의 모습이 보였다. 말을 탄 군사들과 총을 든 군사들이 경복궁을 둘러싸고 있었다. 조선 사람들은 일본 군사들 앞을 지나갈 때, 그 기세에 놀려 고개를 돌리고 힐끔힐끔 결눈질만 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 왜 일본 군사들이 궁궐을 감싸요?” “조선이 힘이 없으니까.” 아버지는 길게 말하지 않았다. 지난번 청나라 군사를 보고 물었을 때도 똑같이 대답했다.	일본군이 조선 땅에 들어온 상황과 이유 ④
21	“동학도가 되면 왜 관군에게 잡혀가나요? 동학도는 나쁜 사람인가요?” “아니다, 동학을 믿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다. 단지 서로 믿는 것이 다를 뿐이다. 그걸 죄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잘못이지.”	동학에 대한 탄압 ③
33	서찰의 내용은 길지 않았다. 커다란 종이 한가운데 덩그러니 쓰인 글자들은 모두 합해 열 자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모두 한자로 쓰여 있었다.	신분에 따른 글자 사용

29) 『서찰을 전하는 아이』의 줄거리 및 초등 역사 수업에 활용할 역사 동화로서의 상세한 선정 근거는 최동민 (2023, 40~42쪽) 참고.



쪽	내용	분석
	<p>‘난 한문을 모른다.’                      언문은 어깨너머로 배워 떠들떠들 읽었지만 한문을 배운 적은 없었다. 한문은 양반들의 것이었고, 보부상단을 관리하는 몇몇 똑똑한 어른들의 것이었다. 온몸으로 답답함이 밀려왔다.</p>	<p>①</p>
39	<p>나는 노인이 양반이 아니기를 바랐다. 노인이 나와 같은 처지면 한문 몇 자 어렵지 않게 가르쳐 줄 수 있겠지만, 만약 양반이라면 나 같은 밧짐장수의 아이가 감히 한문을 알려 한다고 화를 낼 수도 있었다.</p>	<p>신분 차이에 따른 삶의 어려움                      ①</p>
48	<p>동학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배를 타고 아산만으로 온 청나라 군사들이 육지에 오르기도 전에 일본 함대의 공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 싸움으로 천 명이 넘는 청나라 병사들이 죽어, 그 시체들이 아산만 일대의 바다에 수없이 떠다니는다고 했다.                      “청나라는 이제 늙은 호랑이가 됐으니까.”                      책장수 노인이 말을 하고 공방대를 물었다.                      “제 나라 백성 죽이자고 청나라 군대를 불러온 임금과 신하들이 문제지.”                      듣고 있던 주막 주인도 한마디 거들었다.                      “그런데 왜 일본 군대와 청나라 군대가 싸워요?”                      내가 물었다.                      “조선이 임차 없는 떡이라 그렇다. 둘이서 더 먹으려고 싸우는 것이다. 동학 농민군을 잡자고 조선 조정에서 청을 불렀으니, 일본군도 움직인 거지. 일본은 청나라 혼자 조선에서 힘을 쓰게 놔두지 않겠다는 거다.”                      노인은 대답을 하고 혀를 찼다.</p>	<p>청·일 전쟁의 원인                      ④</p>
60	<p>“그런데 동학 농민군은 왜 난을 일으켰어요?”                      내가 물었다. 그러자 그 어른이 대답했다.                      “처음에는 전라도 고부 땅에서 일어났다고 하더라. 조병갑이라는 고부 군수 놈이 어찌나 백성들 것을 빼앗고 못살게 굴던지 도저히 살 수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백성들이 들고일어난 거야. 거기에 동학도들이 주축이 되어 함께 난을 일으켰지. 하긴 백성 피 빨아먹는 놈이 어디 조병갑 하나더냐. 궁궐에 있는 놈들이 더한 놈들이지.”</p>	<p>1차 동학농민운동의 원인                      ③</p>
62	<p>“나쁜 놈들, 싸우려면 제 나라 땅에서 싸우지 왜 조선 땅에서 싸워? 이게 무슨 망신이야. 조선은 오랑캐놈들과 왜놈들 싸우라고 땅을 빌려준 셈이잖아. 이 나라 임금은 뭐하는 거야!”                      그중 나이 많은 어른이 답답한 듯 푸념을 했다.</p>	<p>청·일 전쟁에 대한 백성들의 시각                      ④</p>
71	<p>나는 천주학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었다. 조선에 들어와서 천주학을 가르친 서양인들과 천주학을 따르는 조선 사람들이 무참히 죽었다는 얘기였다. 그때처럼 천주학을 믿는 것이 위험한 세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왠지 마음이 편치는 않았다.</p>	<p>천주학 탄압                      ①</p>
73	<p>“천주학을 믿으면 무엇이 좋은가요? 천주학은 무엇인가요?                      천주학 어른이 친절해서 궁금했던 말이 쉽게 나온 것이다.                      “천주학은 천주님을 믿는 것이다. 그분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p>	<p>천주학 종교의 교리                      ①</p>

쪽	내용	분석
	다. 너와 나까지도. 그분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평등하다.	
78	“도련님, 도련님.” 나는 소리 높여 아이를 불렀다. 난 보부상의 아들이고 아이는 양반이기 때문에 그 아이는 도련님이 되었다. 책을 읽던 아이가 나를 보았다. “네가 나를 불렀느냐?”	신분제의 현실 ①
98	가을이 되면서 전라도에서 동학 농민군이 다시 봉기를 했고, 이제는 충청도, 강원도 할 것 없이 어디서건 봉기한다고 했다. 어떤 사람들은 동학 농민군이 옳은 일을 하는 거라며, 세상이 동학도들이 말하는 것처럼 바뀌어야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괜히 난을 일으켜 아까운 목숨만 잃는 거라고 말했다. 그러나 누구도 임금과 관군이 옳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2차 동학농민운동과 백성들의 시각 ③
100	“나이가 열셋이면 나와 동갑이다. 동갑이면 다른 사람들은 친구라고 한다. 다음에 만나거든 그때는 친구로 지내자.” 그 말에 놀라 내가 말했다. “도련님은 양반입니다.” “아니다, 나도 친구가 생겨서 좋다. 이제 차츰 세상도 그렇게 바뀔 거라고 하더라.” 양반 아이가 환하게 웃었다. 나도 따라 웃었다.	신분제의 동요 ①
100	성화 싸움 이후, 일본군은 평양에서도 압록강 너머에서도 청나라와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뒀다고 했다. 이제 청나라 군대는 조선 땅에서 완전히 쫓겨난 것이다.	청·일 전쟁의 결과 ④
100	“일본 군대가 공주로 간대. 동학 농민군이 전라도에서 공주 쪽으로 올 거래. 결국 또 일본 군대가 나선 거야.” “동학 농민군의 수도 만만치 않다던데. 전라도를 거의 다 점령하고 도성으로 간다고 하니 그 세력을 알 만하지.”	동학 2차 봉기와 우금치 전투 ③
102	지금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온 동학 농민군이 공주 남쪽에 진을 치고, 북쪽에서 오는 동학 농민군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사람들은 남쪽에서 온 동학 농민군을 남접, 북쪽에서 오는 동학 농민군을 북접이라고 불렀다. 공주에서 남접과 북접이 함께 모여 싸울 거라고 했다.	동학 우금치 전투 ③
119	눈앞에 주막 아주머니가 말해 준 우금치 고개가 보였다. 나는 단숨에 고개에 올라 건너편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고개 아래에는 하얀 눈이 수북이 와있었다. 거기 쌓여 있는 건 눈이 아니었다. 그건 사람들이었다. 흰 옷을 입고 쓰러진 사람들이 겹겹이 쌓여 눈이 온 것처럼 들판을 덮고 있었다. 오늘 싸움에서 죽어간 동학 농민군들이었다.	동학 우금치 전투 ③
154	말을 탄 군사들 뒤에 총을 들고 호위하는 군사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에	전봉준의 체포 ③

쪽	내용	분석
	나무로 만든 들것에 실려 있는 녹두 장군의 모습이 보였다. 앉아 있었지만 몸에 힘이 없어 거의 눕다시피 한 모습으로 눈을 감고 있었다. 얼굴과 옷은 붉은 피로 흥뻑 젖어 있었다.	

이 같은 내용 분석을 토대로 『서찰을 전하는 아이』 ‘온작품읽기’ 사회(역사) 수업은 총 3차시로 구성할 수 있다.

〈표 5〉 『서찰을 전하는 아이』 사회 수업 설계<sup>30)</sup>

차시	주요 학습 내용	장(쪽)
1	· 청일전쟁의 원인 알아보기 · 동학농민운동의 원인 알아보기 · 서찰에 적힌 한자 뜻 유추하기	5~8장 (47~84쪽)
2	· 서학(천주학)과 동학의 공통점과 차이점 생각해 보기	9~12장 (85~122쪽)
3	· 동학농민운동의 전개과정 알아보기 · 주인공 아이의 이동 경로를 지도에 그려 보기 · 녹두장군에게 편지 쓰기	13~18장 (123~161쪽)

〈표 6〉 『서찰을 전하는 아이』 수업 설계에 따른 교수·학습과정안 예시(3차시)

학습 주제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	차시	8/8
학습 목표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과 개혁을 시도한 농민들의 노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 동기 유발 - 지난 음악 시간에 배운 ‘새야, 새야, 파랑새야’를 다 같이 불러 봅시다. ○ 학습 문제 안내	5	

30) 『책과 노니는 집』 과 마찬가지로 2023년 최동민의 연구는 사회 수업 4차시를 포함, 포함, 국어(6차시)·미술(3차시)·음악(1차시)·창의적 체험활동(4차시) 등 총 18차시로 『서찰을 전하는 아이』 ‘온작품읽기’ 수업을 설계·적용했다. 그 가운데 사회 1차시 주제는 조선 시대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는 것으로 『책과 노니는 집』 에서도 다룰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여기서는 사회 수업을 3차시로 압축한 안을 제시하였다. 다른 교과를 포함한 『서찰을 전하는 아이』 전체 수업 설계안은 최동민(2023, 50쪽)을 참고.

	-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과 개혁을 시도한 농민들의 노력에 대해 알아보시다.		
전개	○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 파악하기 -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과 결과에 대해 알아보시다(사료 제시). - 동학농민운동은 실패한 운동이라고 생각하나요?	10	
	○ 아이의 이동 경로를 지도에 그려 보기 - 작품 속 아이가 이동한 경로를 우리나라 지도에 그려 봅시다.	10	◆우리나라 지도
	○ 전봉준에게 편지 쓰기 - 내가 그 시대의 농민이라고 생각하고 전봉준에게 편지를 써 봅시다.	10	◆편지
정리	○ 소감문 작성하기 - 내가 만약 조선 후기의 농민이었다면 동학농민운동에 함께 했을까요? - 오늘 수업의 소감문을 작성해 봅시다.	5	◆소감문

## 2. 보조 자료

『서찰을 전하는 아이』는 동학농민운동을 중심으로 보조 자료를 고안하였다.

### 가. 민란

星州에서 민란이 일어나 牧使 李容準을 쫓아냈다. 이때 관리들은 부정한 재물을 탐하고 있었으므로 백성들이 소란을 일으켜 그들을 쫓아낸 것이다. 이런 일을 상하가 다 보통 있는 일로 생각하였고, 그들을 治罪하라는 명령도 늦게 내려졌다.

그리고 쫓겨난 관리들은 서울로 가서 백방으로 주선하여 다른 읍으로 승진되어 갔다. 관리를 발령할 때는 언제나 某邑의 재상이 병이 들었다고 하면서, 다른 곳으로 차출을 청하면 모습과 서로 바꾸라는 內批를 내렸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서로 비웃으면서 묻기를, “어찌 某宰의 병이 留任되면 낫지를 앓고, 자리를 서로 바꿔야만 낫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황현, 『매천야록』 제1권, 上(1894년 이전) 11)<sup>31)</sup>

이 자료는 1883년 경북 성주 민란에 관한 것이다. 19세기 말 특히 1880년대 이후 지방 각지에서 크고 작은 민란이 빈발했고, 그 같은 흐름이 동학농민운동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동학의

31) 『매천야록』 제1권, 上(1894년 이전) 1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배경으로 학생들에게 소개할 만하다. 민란으로 쫓겨난 지방관이 중앙에 청탁해 다른 지역으로 승진해 간다는 지적에서 당대 공직 사회의 문란함과 그로 인한 백성들의 피폐한 삶을 짐작할 수 있다.

#### 나. 동화 봉기

문(問) : 너의 성명(姓名)이 무엇이나?

공(供) : 전봉준(全琫準)이오.

문(問) : 나이는 몇 살이나?

공(供) : 마흔 한 살이오.

문(問) : 어느 고을에 사는가?

공(供) : 태인(泰仁) 산외면(山外面) 동곡(東谷)이오.

문(問) : 생업(生業)은 무슨 일로 하느냐?

공(供) : 선비로 생업을 삼고 있습니다.

문(問) : 작년(昨年) 3월 동안 고부(古阜) 등지(等地)에서 민중(民衆)을 모두 모았다 하니 어떤 사연(事緣)으로 그리하였나?

공(供) : 그때 고부(古阜) 수령(守令)이 정액(正額) 외(外)에 가혹(苛酷)하게 거두어들인 것이 몇 만 냥인 고로 민심(民心)이 원통(冤痛)하고 한(恨)스러워 이 거사(擧事)가 있었나이다.

문(問) : 비록 탐관오리(貪官汚吏)라 일컫더라도 명색(名色)이 반드시 있는 연후의 일이니 상세(詳細)히 말하라.

공(供) : 지금 그 세세(細細)한 조목(條目)을 이루다 말할 수 없고 그 대개(大概)를 대략(大略) 고하옵니다. 하나는 민보(民洩) 아래에 보(洩)를 쌓고 능정(勒政)으로 민간(民間)에 전령(傳令)하여 상납(上納)은 한 두락(斗落)에 2두(斗)의 세(稅)를 거두고 하납(下納)은 한 두락(斗落)에 1의 세(稅)를 거두니 도합(都合) 조(租)가 700여 석(石)이오, 진황지(陳荒地)를 백성(百姓)에게 갈아먹기를 허가하여 관가(官家)로 문권(文券)하여 징세(徵稅)를 안한다더니 추수(秋收)할 때에 미치어 강제로 징수한 일이오, 하나는 부민(富民)에게 능탈(勒奪)한 엽전(葉錢)이 2만 여 냥(兩)이오, 하나는 그 아버가 일찍이 태인(泰仁) 수령(守令)을 지낸 연고로 그 아버를 위하여 비각(碑閣)을 세운다고 알리고 능렴(勒斂)한 돈이 천여 냥(兩)이오, 하나는 대동미(大同米)를 민간(民間)에서 징수(徵收)하기는 정백미(精白米)로 16두(斗)씩 준가(準價)로 수렴(收斂)하고 상납(上納)은 추미(麴米)를 사서 이익(利益)을 모조리 먹은 일이오, 이 밖에 허다(許多)한 조건(條件)은 기억할 수 없나이다. (개국

504년 2월 9일 동도죄인 전봉준 초초 문목[開國 五百四年 二月初九日 東徒罪人 全奉準 初招 問目]<sup>32)</sup>

『서찰을 전하는 아이』를 관통하는 배경인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전봉준 공초, 즉 심문 기록을 활용할 수 있다. 고부군수 조병갑의 탐학의 실상을 통해 농민 봉기가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동학농민운동의 원인과 이후 각지로 확대되는 과정을 이 자료를 통해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다. 원문 자체는 다소 어려운 표현들이 많으나 동학 봉기의 발단이 되는 고부군수 조병갑의 만행 등이 생생하게 적혀 있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풀어낸다면 동화 읽기와 병행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 V. 결론

2025년 초등학교 3~4학년군의 일부 교과에서 인공지능(AI)을 적용한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될 예정이거니와 현재 우리 교육계의 가장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는 문해력 증진일 것이다. 디지털기기의 활용 능력이 중요해지는 만큼 글을 읽고 그것을 이해하며 나아가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펼치고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문해력 또한 중시되어야 할 요소일 것이다. 어떤 작품의 일부를 발췌하는 것이 아닌, 전체를 온전히 살피는 ‘온작품읽기’는 그 점에서 의미 있고, 현장 교실에서 어떻게 적용-활용할 수 있을지 더 많은 노력과 모색이 필요한 수업 방법이다.

이 논문은 각각 조선 후기와 개항기를 배경으로 하는 『책과 노니는 집』, 『서찰을 전하는 아이』 두 역사 동화를 소재로 택해 현 교육과정 체제 안에서 사회과 역사 수업을 중심으로 ‘온작품읽기’ 수업을 고민하고 실천한 최동민(2023)의 연구를 토대로 그것을 수정 및 보완하여 학계에 제출하고자 했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 해당 성취기준에 맞춰 두 역사 동화의 내용 분석을 보완했고, 수업 설계도 일부 수정했다. 또 역사 동화를 읽은 후 그것을 소재로 교사가 역사 수업을 할 때, 자료를 추가로 준비해 활용한다면 수업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는 필자들의 판단에 따라 어떤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지를 검토했다.

학생들의 흥미와 호기심, 상상을 끌어내는 초등 역사 수업을 위해 필요한 것의 하나는 교과서를 넘어서는 다양한 자료, 즉 이야깃거리라고 생각한다. 이 논문에서 수행한 ‘온작품읽기’ 작품

32) 전봉준 공초.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12. 동학농민혁명 사료 아카이브  
(<https://www.e-donghak.or.kr/archive/>).

선정과 내용 분석,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1차 사료 선정 등 일련의 작업은 재밌는 역사 수업을 위한 하나의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논문 투고일: 2024. 9. 27. ※ 논문 수정일: 2024. 11. 20. ※ 게재 확정일 : 2024. 11. 29.

### 〈참고문헌〉

- 강선주(2005). 생활사 교육의 내력과 방향 :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역사 영역의 내용 구성을 중심으로. **역사교육**, 95, 143-176.
- 경상남도 교육청(2919). **교사 수준 교육과정(실천편)**. 경상남도 교육청
- 김동국(2014). 초등역사교육에서 주제 중심 내용구성방안. **역사교육연구**, 19, 7-50.
- 김승현(2013). **역사 동화를 활용한 독서 지도 방안 연구: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교과서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아람(2020). **그림책을 활용한 반응 중심 초등 역사수업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영훈(2021). **온작품읽기를 활용한 역사 수업 사례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은애(2020). **온작품읽기 활동이 초등학생의 읽기 능력과 독서 태도, 공감 능력에 미치는 영향**. 광주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나미란(2022). **개념 기반 초등 역사교육과정 내용 선정과 조직**.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문재경(2019). **초등학교 생활사 교육: 담론과 구성**. 부산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문재경(2024). 2022 개정 교육과정 이후, 이제 초등학교 역사교육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역사와 교육**, 24, 28-51.
- 박선경(2018). 초등 역사학습의 비공식적 역사읽기 방안. **역사교육연구**, 31, 236-284.
- 반정이(2017). **‘천천히 깊게 읽기’ 지도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방지원(2011). 초등 역사교육에서 생활사 내용 구성. **역사교육**, 119, 1-27.
- 서미숙(2010). **역사동화를 활용한 독서지도방법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서민희(2018). **‘살아보기’와 ‘거리두기’를 활용한 역사동화 지도 방안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석병배(2013). 초등역사수업에서 글쓰기로 역사하기 가능성 탐색. **역사교육연구**, 17, 221-264.
- 심영택(2020). 교재를 활용한 온작품 읽기 수업 실행 연구 -교재를 통한 깊이 읽기 사례. **학교와 수업 연구**, 5(2), 1-33.
- 심영택(2021). 교사의 실천적 지식과 열정에 관한 연구 -초등교사의 온작품 읽기 수업을 중심으로-. **학교와 수업 연구**, 6(2), 127-147.
- 심영택(2022). 온작품 읽기 교육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초등국어교육**, 73, 75-108.
- 심영택·고미령·윤어진·박효진·조운영(2022). 온작품 읽기 수업 연구 -교사의 피드백 유형을 중심으로-. **학교와 수업 연구**, 7(1), 97-140.
- 안진선(2012). **역사동화를 활용한 역사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임해진(2023). **초등학생의 역사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교육연극 활용 역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전국초등국어교과모임 이오덕김수업연구소(2017). **우리 교실 책 읽기의 시작 온작품읽기**. 서울: 휴먼에듀
- 정병설(2005). 조선후기 한글소설의 성장과 유통. **진단학보**, 100, 263-297.
- 조수삼 저, 안대회 역(2010). **추재기이 : 타고난 이야기꾼, 추재 조수삼이 들려주는 조선 후기 마이너리티들의 인생 이야기**. 서울: 한겨레출판



- 조은숙·김태호(2021). 교사의 실천적 지식으로서 ‘온작품 읽기’의 현황과 전망. **한국어문교육**, 34, 205-233.
- 최동민(2023). **초등 사회과 역사 수업 방법 연구 : 역사동화 ‘온작품읽기’ 수업을 중심으로**. 전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한상희(2016). **온작품읽기를 통한 초등 독서 지도 방안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황선열(2008). 근대 역사동화의 성과와 전망. **아동청소년문학연구**, 2, 35-62.
- 황은희(2023). 2022 개정 초등역사 교육과정의 방향과 특징. **역사교육연구**, 46, 67-121.
- 허영훈·김봉석(2016). 2015개정 초등 사회과(역사 영역) 교육과정 분석 및 교과서 개발 방향 탐색. **사회과교육**, 55(2), 123-139.
- Egan, K(1986). *Teaching as Story telling: An Alternative Approach to Teaching and Curriculum in the Elementary School*.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evstik, L. & Barton, K(2001). *Doing History: Investigating with Children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NewYork: Routledge.

〈Abstract〉

---

## A Study on the Teaching Method of History Class In Elementary Social Studies Using Historical Fairy Tales

---

Choi, Dongmin<sup>1</sup>, Shin, Jaejoon<sup>2</sup>

This paper examined teaching methods using historical fairy tales as a case study for elementary school history classes that elicit students' interest and imagination. In his dissertation, Choi Dongmin (2023) selected two historical fairy tales, 『Chaeggwa nonineum jib(A house where you can enjoy books)』(Lee Young-seo, 2009) and 『Seochal-eul jeonhaneum ai(A child delivering a letter)』(Han Yun-seop, 2011) and practiced 'reading the entire book' class. This paper attempted to complement Choi Dong-min's dissertation.

First, this paper supplemented the contents analysis of the two historical fairy tales in line with the 2022 revised Curriculum achievement standards. Second, when teaching historical fairy tales, additional materials that can be read with students are needed. Accordingly, this paper reviewed and proposed what supplementary materials should be provided to students during class. The selection and contents analysis of 'reading the entire book' performed in this paper, as well as the selection of supplementary materials that can back up them, are reference cases for interesting history classes. In addition, it may be helpful in improving the 'reading the entire book' teaching method for historical fairy tales.

**Keywords** : History, Historical fairy tale, Social studies in elementary school, History class, 『Chaeggwa nonineum jib(A house where you can enjoy books)』, 『Seochal-eul jeonhaneum ai(A child delivering a letter)』

---

1. Teacher, Jeonju Bookil Elementary School, dm3206@hanmail.net (Lead Author)

2. Assistant Professor, Jeo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jj980707@jnue.kr (Corresponding Author)